

노벨상 심사위원이 말하는 노벨상 “수상 지름길은 젊은 과학자 지원”

글 | 이주영 _ 연합뉴스 기자 yung23@yna.co.kr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노벨물리학상 전·현직 심사위원(2008. 10. 22)

2008년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 후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한국 양쪽이 모두 시끄럽다. 일본은 수상자를 3명(일본 정부는 물리학상 수상자인 난부 요이치로 시카고대 명예교수를 미국인으로 분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이나 배출한 기쁨에 들떠있고, 한국은 올해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빨리 받아야 한다는 조바심에 열병을 앓는 듯하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노벨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심사위원에게 물었더니 너무나 평범하고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자신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험장비

를 지원해 주고 기초과학 연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 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2001~2003년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10년 간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으로 일 해온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맷 존슨 교수(60)의 말이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OCOS, 이사장 엄천일)이 마련한 ‘해외 우수석학 초청 워크숍’ 참석차 한국을 찾은 존슨 교수와 링코핑대학 잉거머 룬스트롬(67) 교수, 예테보리대학 엘리너 캠벨(48, 여) 교수 등 3명의 노벨물리학상 전·현직 심사위원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노벨상 자격은 업적뿐...국적, 성별, 지역 고려 안 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노벨상의 수상자들은 어떻게 가려지는 것일까? 우선 매년 1월 전 세계 각 분야별 추천위원 2천 명으로부터 노벨상 후보를 추천받는다. 존슨 교수의 말이다. 처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2천 명에는 먼저 스웨덴 왕립한림원 회원 350명과 노벨상 심사위원이 있다. 다음으로는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지역 교수들이 추천할 수 있고 과거 노벨상 수상자들과 해마다 선정하는 각 분야별 유명 대학들, 특별 초청 과학자 등으로부터도 수상자 후보 추천을 받는다.

존슨 교수는 후보 추천권을 갖는 대학에 대해 “해마다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는 대학 중 한 곳을 골라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며 “몇 해 전부터 유명 대학 리스트를 늘리는 작업을 해왔고



캠벨 교수

한국도 이 중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후보가 추천되면 노벨상 심사위원회가 먼저 300명 정도로 줄인 다음 2월부터 7월까지 계속 심사를 해 후보를 압축하는 작업을 한다. 8월이면 위원회 자체적으로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스웨덴 왕립한림원

에 올린다. 이렇게 선정된 노벨상 후보는 9월에 30명으로 구성된 각 분과별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거쳐 10월에 왕립한림원에서 최종적으로 수상자로 결정된다.

존슨 교수는 특정 대학이나 지역, 특정 강대국에서 유난히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온다거나 여성 수상자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후보를 심사하는 기준은 철저히 해당 후보의 업적과 개인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며 대학이나 지역, 국가, 성별 등에 따른 안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후보의 연구 성과가 첫 발견 또는 발명인지, 그리고 그 발견이나 발명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는지, 새로운 학문 분야 개척에 기여했는지,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등이 심사에 고려된다는 것이다.



룬스트롬 교수

현재 시점에서 이슈화된 연구 분야보다는 오래 전에 기초적인 발견을 한 사람에게 상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가 입자물리학에서 나오자 일부에서 힉스입자 탐색을 위한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대형강입자가속기(LHC) 가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심사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해도 최종 수상자 선정 권한은 왕립한림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1908년 노벨물리학상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 왕립한림원에 올렸으나 왕립한림원에서 수상자가 최초로 컬러 사진 감광판을 만든 물리학자인 프랑스의 가브리엘 리프만으로 바뀐 예가 있다. 막스 플랑크는 10년이 지난 1918년에야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존슨 교수는 “이런 변수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는 발표 당일 몇



맷존슨 교수

시간 전까지도 공표되지 않는다”며 “올해도 발표 당일 오전에 수상자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올해 300명으로 압축된 후보에 한국인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피하며 노벨상 후보에 대한 심사과정부터 최종 선정

까지 모든 과정은 50년 간 비밀에 부쳐진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이 자유롭게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래는 완전 비밀이었다가 수상자 결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시점에 비밀이 풀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50년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한국도 기초과학 충실히 하면 수상 기회 올 것

한국이 아직까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과학의 역사가 짧은 점’을 드는 데 대해 룬스트롬 교수는 “노벨상은 실험으로 입증된 업적에 대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발견을 한 시점으로부터 수상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원칙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과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노벨상 수상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성 수상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수상자가 적은 것은 여성이 과학을 시작한 것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며 성별이나 지역 등은 심사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반면 한국은 수상자가 아직 없다는 지적에 대해 캠벨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기초과학 수준 등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과학 역사는 20년 남짓이고, 일본은 이보다 길기 때문에 일본에 기회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외국과의 협력 연구 강화 등이 노벨상 수상을 위한 전략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뛰어난 기초과학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언제든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과학자가 노벨상 후보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자신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T**